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설계 공모 10개팀 추려…다음달 최종 선정

박현익 기자

입력 2019.11.06 14:46 | 수정 2019.11.06 15:12



강원 춘천에 위치한 네이버 제1데이터센터 ‘각’.

네이버([NAVER\(281,000원 ▼ 5,500 -1.92%\)](#))는 세종시에 세워질 제2데이터센터 설계 공모전에서 본선 진출 10개팀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는 내달 중 최종 작품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하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9월 말 시작한 국제 공모전에 총 16개국 86개팀이 지원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21일까지 총 12개국 45건의 작품을 접수받았다"며 "여기서 추려진 미국과 영국, 중국 3개국 해외팀과 7개의 국내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본선에 올라간 10개 팀은 상금 3000만원과 설계비 7000만원 등 총 1억원씩이 지급된다.

심사위원회에는 조항만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천의영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위진복 UIA(국제건축가 연합) 소장,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조항만 교수는 "이번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국제설계공모에 응모한 국내외 우수한 건축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매년 증가하는 사용자의 IT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미래 클라우드 산업의 전초기지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준비 중에 있다. 원래는 2년 전부터 경기 용인시에 짓기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고압선 통과’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새로운 지역 선정에 나섰고, 최근 데이터센터 부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선정했다. 사업비 규모는 총 5400억원이다.
